

디자인 정책의 형성 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of Design Policy Formation

금진우
고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Keum, Jin-Woo
Dept. of Industrial Design, Kosin Univ.

• Key words: Design Policy, Policy Formation, Policy system

1. 연구 배경과 목적

국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특별히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의 중추로서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디자인이 지니는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디자인 육성을 위한 지원과 진흥책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 후속의 체계적인 진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제반 여건들을 검토해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의 중요성은 이제 잘 알게 되었지만, 막상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키며, 적용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중에 윤곽을 잡는다 해도 대개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정부의 디자인 정책 체제와 정책 형성 요인들을 규명하여 우리 나라 디자인 정책 형성의 체계를 찾아내고자 한다.

2. 디자인 정책의 형성 체계 분석

2-1 디자인 정책 형성 체계의 구조화

일반적으로 정책은 연구자가 현상의 어느 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짐으로, 그 개념 정의는 바라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²⁾ 이러한 시각을 적용하여 일반화시켜 보면, 정책은 주로 정부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실현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는 미래에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할 것이다.

디자인 정책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요인들은 정책 철학,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 정책 추진 주체, 정책

담당자와 담당 기관, 법과 제도, 사회 경제 요인, 문화적 요인, 정부와 기업의 의지 등등 많은 변수들을 들 수 있다. 이 변수들이 디자인 정책 체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변수들이 상호 관련되어 디자인 정책 형성, 디자인 정책 집행, 그리고 디자인 정책 환경 등을 산출해 낸다.

디자인 정책 형성 체계는 기본적 요소로서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정부의 연계망(net-work)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 요소는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기능을 하지만 디자인 정책 형성의 차원에서 깊이 상호 관련될 수 있다. 이를 정책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 : 현대 산업은 기술 그 자체가 디자인으로 표현되면서 기업의 제품 기획과 생산 과정에서부터 높은 기술력으로서의 디자인이 활용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함께 이윤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에서는 물론이고 디자인 자체, 즉 기술성이 갖는 중요성을 함께 의미한다. 따라서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는 기업 철학이 요청되며,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관의 형성을 위한 비판적 요소가 매개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디자인에는 정부와 학계 등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제도와의 연결이 요청되는 것이다.
- 2) 정부 :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지지하며,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 공감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정책적 역할에 초점이 있다. 디자인이 기업에 있어서 기술성을 의미할 때, 소비자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측면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번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발전 전략의 한가운데 디자인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디자인의 성격상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지원적이고 보호적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학계 및 전문가 집단 : 무엇보다 축적되고 발달된 디자인 및 디자이너를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과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전망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술로서의 디자인이 기업 활동의 중심에 있고, 가치 중립적인 기술로서의 디자인이 소비자 혹은 시민의 욕구와 행동을 유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비판 이론가³⁾들의 경고를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이 통찰하는 현류의 시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디자인 형성 체계의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 정책 체계를 구조화시키면 다음의 <그림 1>와 같다.

2-2 디자인 정책의 성격과 정책 체계의 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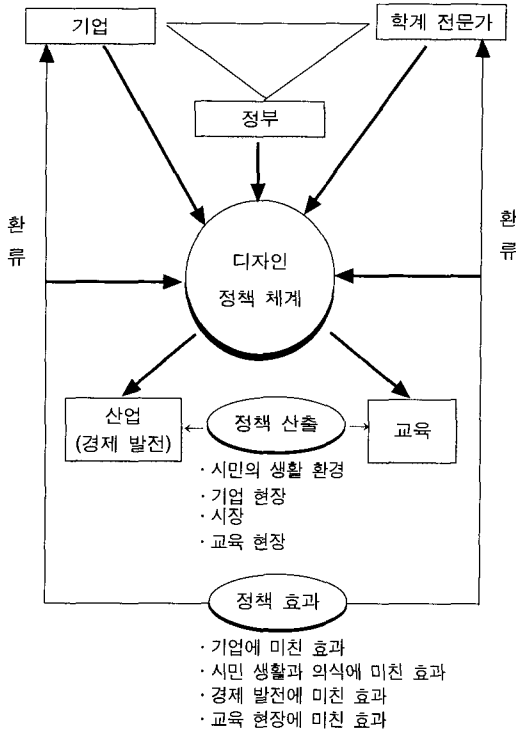
3) Jurgen Habermas, *Toward a Rational Society*, (Boston : Beacon Press, 1970).

1) 김승택, '신산업의 발전 비전 및 육성 방안', (산업연구원, 1998), pp.3-10 ; 산업연구원, '지식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략 I, II', (1998).

2) H. D. Lasswell & A. Kaplan, *Power and Societ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0), p.71 ; A. Wildavsky & J. L. Pressman, *Implementation*, 2nd ed., (L.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pp.xx-xxi ; T.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N.J. : Prentice-Hall, 1981), p.1 ; Yehezkel Dror,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N.J. : Transaction Inc, 1983), p.12 ;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N.Y. : Alfred A. Knopf Inc, 1953), p.129 ; 김신복 외, 「정책학」 (서울:법문사, 1982), p.11 ; 유훈, 「행정학 원론」 (서울:법문사, 1985), p.107 ;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대영출판사, 1997), p.52

디자인은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위해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태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정책은 여타의 정책과 달리 관료적 경험과 조직의 합리성만을 바탕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수단을 설정할 때,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과 의견 결집으로 이어지는 자유로운 흐름이 존중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림 I> 디자인 정책 체계의 구조화



디자인 정책 체계는 디자인 및 디자인 산업의 지원과 보호적 측면과 함께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산업이 경제적 이윤에만 집착하여 그것이 줄 수 있는 사회적 부정적 측면이 경제 발전의 논리를 타고 간과될 수 있는데, 디자인 정책 체계는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기능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정책의 체계를 규정할 경우, 디자인 정책 체계는 조직 구조상 비계층적 형태와 인적 구성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소유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 정책 체계에 기능상 어떠한 역할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계층적 형태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조직 유형상 일종의 분할 구도의 조직에 해당 할 것이다.⁴⁾ 분할 구도 조직은 고도의 기능적 전문성과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디자인 정책 체계로서의 정책 형성 및 집행의 역할보다는 조사 연구에 초점을 두는, 즉 디자인 정책의 실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단점을 가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단순히 정부의 디자인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정책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직 구조상 단순 구조의 기계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이는 관료로서의 기능적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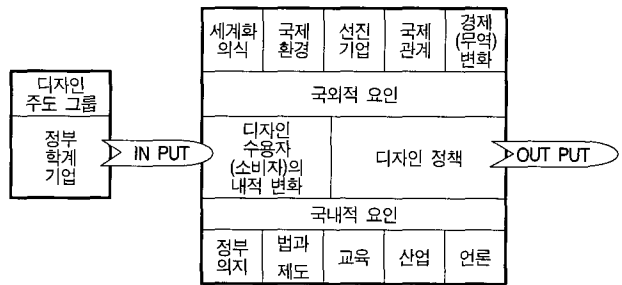
성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직 여건 속에서 발달된 관료 조직을 이용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디자인 정책 체계로서의 정책 형성 기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주어진 정책 목표의 집행에 역할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기업, 학계(전문가 집단 포함)로 구성되는 디자인 정책 체계는 인적 구성의 내용에 따라서 조직의 성격과 기능의 차원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디자인 정책 형성 관련 환경 요인

디자인 정책 체계의 형성 과정은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들 요소는 정책 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정책 주도 집단과 정책 채택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 국외의 여러 요인 및 디자인 수용자의 인식과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디자인 수용자는 국내의 소비자는 물론 해외의 구매자, 기업이 포함된다. 디자인 정책 체계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 과 같다.⁵⁾

<그림 II> 디자인 정책 형성에 관련된 변수



디자인 주도 그룹은 학계, 정부, 기업으로 이들이 디자인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직간접으로 의견 제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정책 형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요소들 하나하나 각각의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3. 결론

많은 나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을 국가 산업으로 진흥시키고, 기업은 경영 전략 도구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디자인 정책도 당면 과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가 중추 산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체계와 환경 관련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물론 그간에 정책 평가가 미흡하였고, 따라서 정책 형성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도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에 머물 수밖에 없었음을 그 한계로 한다. 하지만 디자인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계속됨으로 디자인 정책이 잘 입안되어 그 효율성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4) Stephen P. Robbins, Organization Theory : Structure, Design and Applications (3rd.), (N. J. : Prentice-Hall, 1990), pp.275-307.

5) 금진우, "디자인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